



관내 동향

□ 사천시,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건의

-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3월 말 종료되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 항공기 부품제조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고용 유지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지난 1년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
-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 장기화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한 상황.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항공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해외 민항기 부품 수출 중견·중소 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 사천시는 “항공제조업체들의 기반을 유지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KAI, 국내외 전시회 참가로 마케팅 활동 본격화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2월 15~18일까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2022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해 해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KAI는 경공격기 FA-50, KT-1, 수리온과 LAH, KF-21 등을 선보이며 필리핀, 태국 등 기존 수출국과 후속 사업을 협의하고 브루나이, 라오스 등 잠재고객 발굴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대표 이사와 만나 기체 구조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2월 24~26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된 ‘2022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합솔루션을 선보였다.
- KAI는 수직이착륙무인기, 무인전투기 등 각종 무인기와 함께 무인기 플랫폼에 4차산업 기술을 더한 무인기 통합솔루션을 홍보하며 금년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했다.

□ KAI, 코난테크놀로지와 4차 산업 기술협력 MOA 체결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2월 22일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와 항공우주분야 기술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사는 미래비행체, 차세대 고장·수명예측시스템, 무인기와 드론, 위성 개발 및 데이터 확보 등에 상호협력할 예정이며, 우선 군수 빅데이터 체계구축과 자율비행 및 이미지 데이터 처리 기능이 포함된 무인기와 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 특히 군수 빅데이터 분야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미래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KAI는 우주항공분야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향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美 우주업체 M&J사에 지분 투자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이하 켄코아)가 세계 최대 발사서비스 업체인 ULA(United Launch Alliance)의 핵심 공급망인 'M&J PRECISION'(이하 M&J)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
- ULA는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발사체 사업부문을 합병해 설립한 우주 발사서비스업체로 미국 내 대형 국책 우주 프로젝트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 M&J는 ULA와 5분 거리에 위치한 메이저 공급업체로 2021년 우수 협력업체상(Excellence Award)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 켄코아는 나사, 블루오리진 등에 10년간 특수 원소재를 공급해왔으며 나사의 아르테미스 파트너사로 등록돼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등 꾸준히 우주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점차 M&J의 지분 비중을 늘려 기존 우주 사업 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내 동향

□ 경남도의회,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 대정부 건의안 제출

-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 이 건의안은 57명의 여야 도의원 전체가 서명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건의안에는 우주항공청 최적지가 경남이고 그중에서도 누리호 총조립 앵커기업인 KAI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된 사천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황의원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라며 “전통적 제조사업을 넘어 우주로 향한 문을 열어야 하고 그 실마리가 우주항공청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 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 ANH, 에어로디제이컨설팅 및 경남TP와 UAM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ANH)가 2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두 건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NH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UAM 상용화 실증사업인 그랜드 챌린지 참가를 위해 에어로디제이컨설팅과 ‘K-UAM 이동형 통신환경 분석 및 중계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었다.
- 이 계약으로 양사는 K-UAM 이동형 통신환경 분석 및 중계시스템 공급, K-UAM 그랜드 챌린지 지상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개발, 기체 탑재형 CNS 장비의 안전성 검토 등 UAM 운용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 같은 날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드론 운용 시스템 및 경남 UAM 개발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UAM 개발·인증 표준화, 관제시스템 구축, KG-UAM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유, 드론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 확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동향

□ 국토부,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본격 추진

- 국토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를 추진한다.
- 본 사업은 UAM 관련 신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UAM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수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2023년부터 전남 고흥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통합운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2단계는 1단계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도심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 국토부는 “국내외 UAM 산업을 이끌어 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은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제도화에 참고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통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 전략' 공개

- 산업부는 2월 23일 '미래형 항공기체(Advanced Air Mobility·AAV) 개발 전략 방향'을 발표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나섰다.
- AAV는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비행체로 드론택시와 플라잉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본 전략에는 국내 업체가 투자한 해외 개발 1세대 기종에 국내 개발 부품을 탑재한 파생형 기종 개발,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2세대 형식증명기 개발, 국방 수요 기반의 범부처 협력 군용AAV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유인 수송용과 무인 화물용, 레저용 등 민수 사업화에 나서고 동남아, 중동, 호주 등과 국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AAV 시장 생태계는 최근 형성 중으로 차별적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 확보와 공급망 구축, 해외진출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합병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해소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후 10년간 신규 항공사가 들어 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과 국제노선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 또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운임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까지만 허용하기로 하고 양사 고객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 현재 유럽연합(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등 필수신고국 6개국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차, 美마이애미시와 에어택시 도입 MOU 체결

- 현대차그룹 산하 ‘슈퍼널(Supernal)이 3월 1일 美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를 통해 슈퍼널과 마이애미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해 AAM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교육 부문에도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에도 힘써 기체 도입 외에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 한편 슈퍼널은 2020년 1월 현대차그룹 내 UAM 사업부로 출발하여 지난해 11월 UAM 법인으로 세워졌다.
- 오는 4월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AAM 전용 이착륙장 ‘에어-원(Air-One)’ 완공 행사에서 기체 모형을 선보일 계획이며 2028년 첫 상업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동향

□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주 국제협력 위기, 국내 우주계획 적신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갈등이 우주 국제협력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러시아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할 경우 국제우주정거장(ISS) 협력을 재고할 것이며, 미국 기업에 로켓 엔진 판매 및 기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ISS는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의 대표적인 우주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러시아는 우주화물선 엔진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우주정거장의 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미국의 노스롭그루먼사는 나사와 우주정거장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러시아제 엔진으로 로켓을 제조하고 있으며,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합작 우주기업 유엘에이(ULA) 로켓에도 러시아제 엔진이 탑재되어 각종 우주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유럽은 올 9월로 예정된 유럽과 러시아의 합작 프로젝트인 화성 탐사선 엑소마스 발사와 2023년 초 예정인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발사 등 여러 이벤트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역시 날씨 변화와 지상관측 등을 위해 러시아 로켓으로 나노위성 '도요샛',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발사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러시아의 결정에 따라 타국가의 로켓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 중국, 로켓 1개 발사로 위성 22기 쏘아 올려 최다기록

- 중국이 2월 27일 로켓 1개를 발사해 위성 22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다.
- 중국은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정(長征) 8호 로켓을 사용해 위성 22기를 쏘아올렸다.

- 위성은 상업용 원격 탐지 서비스, 해양 환경 감시, 산불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중국 신화 통신은 이번 발사는 중국 우주개발 역사상 한 번의 로켓 발사로 가장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일	2022. 3. 14.(월)	보고일	2022. 3. 14.(월)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최고봉(055-831-3471)